https://doi.org/10.14400/JDC.2017.15.12.1

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

구상미*, 김형재**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Sang-Mee Koo*, Hyoung-Jai Kim**
Dept. of Nursing, U1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1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지식가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생 357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성 지식, 성 태도 및 생식건강 증진 행위를 측정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성지식은 생식건강 증진 행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성지식은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12.0%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건전한 생식건강 증진 행위의 실천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생식건강 증진 행위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생식건강 증진 행위, 성 지식, 성 태도, 대학생, 성경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sexual knowledge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e research method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e subjects were 357 university students with 4 year 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tools used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measur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sexual knowledge of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sexual behavior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s. Second, sexual knowledge of stud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explained 12.0%.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through university curriculum in order to improve the practice of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Key Words :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Undergraduate students, Sexual experience

Received 7 September 2017, Revised 24 Octo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Hyoung Jai Kim
(The University of U1)
Email: versus486@u1.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성의식이 개방되어 혼전 성경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첫 성교 연령도 낮아있고 있다[1]. 특히 입시위주의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대학생들은 부모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흡연, 음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행위를 많이 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이성교제가 활발해지며, 성적 접촉 등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빈번한 시기로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감염 등의 증가로 생식건강의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2].

생식건강이란 생식기관,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된 건강 뿐 아니라 안전한 성생활, 자녀출산의 결정권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3].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안전한 성행위 준수와 더불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야 하며[4], 정규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고, 이상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과 성전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성행위 준수 등이 있다[5]. 특히, 남성이 잘못된 건강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정자 기형, 정자 수 감소로 인한 불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여성의 경우 무리한 체중 감소 및 음주와 흡연은 성호르몬 균형을 파괴하여 월경 장애와 불임 및 임신 시 태아 염색체 이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6]. 이처럼 대학생의 생식건강은 결혼 이후의 삶은 물론 평생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바람직한 생식건강 증진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단위 연구결과[7]에서,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이 77.65%, 직접적인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38.1% 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 신입생 시기에 성경험을 하는 비율이 미국의 경우 47.4%., 호주 대학생은 50% 이상과 비교해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또한 표면상 드러난 수치 외에 잠재된 수치까지 포함된다면, 이는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이른 나이에 성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병이나 에이즈 등 생식건강과 관련된 지식정도는 낮은 편이며[8, 9], 이와 관련된 정보 역시 의학적 지식의 백과사전이나 의료진을 통한 정확한 지식이 아닌 또래친구의 경험 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7,8] 음성적 경로를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급진적인 사회의 발달 및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공기오염 등의 환경오염 등의 환경적 요인, 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분위기,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의 부정적 영향 등의 사회적 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으로 낮은 성 지식수준 및 문란한 성 태도 등의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인적 요인으로 대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가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성 지식은 개인이 알아야 할 성과 관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직·간접적으로 습득하여 알고 있는 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10]. 선행연구에서 성 지식이 높은 대상이 낮은 대상보다 생식건강 증진 행위 실천율이 높다[4,10]. 즉,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은 대학생의 성 문제를 예방하고, 성적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후 만족스런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11].

국내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총 15시간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시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피임방법 및 임신중절, 에이즈와 성병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으며, 여학생의 경우 결혼과 가정 및 피임방법 및 임신 중절에 대한 성교육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12]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는 자신의 부정적인 성 태도를 확립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무책임한 성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13].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확한 성 지식을 전달하는 성 교육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생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 및 국가 차원에서 맞춤형 성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성 태도는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이념, 지각과 성향으로 성행위에 대한 개인적 견해로 인격적 성숙은 물론 결혼 전 성 관념 및 결혼 후 성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인격발달 과정에 긍정적인 성 태도 형성이 중요한 요소이다[14]. 특히, 성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성인이 되기 전의 경험과 습득한 성 지식이며[15], 한 번 형성된

성 태도는 지속적으로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성태도가 형성될 경우 결혼관과 결혼 이후의 자녀관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으나[16,17,18], 성 태도가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성 지식, 성 태도[10,13], 성행동 실태[7], 생식건강력 및 성행위실태[1]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의 성 지식, 성 태도, 생식건강 증진 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가 그들의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 지식 및 성 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성 지식과 성 태도가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생식건강 증진 행위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학생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 지식 및 성 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1. 대학생의 성 지식과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2. 대학생의 성 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 지식이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 대학생의 성 지식이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와 Y군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 공학과 및 교양융합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3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을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57)

Character	Category	n	%
Sex	male	154	41.1
	female	221	58.9
Age	~20	87	23.3
	21	113	30.1
	23	62	16.5
	24	33	8.8
	25~	45	12
Grade	1	98	26.1
	2	120	32
	3	93	24.8
	4	64	17.1
Major	Department of Nursing	107	28.5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85	22.7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2	11.2
	Department of Design	36	9.6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42	11.2
	Department of Engineering	41	10.9
	Department of Cultural Convergence	64	17.1
Sexual Intercourse	Yes	190	53.2
	No	167	46.8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은 154명(41.1%), 여학생은 221명(58.9%)로 여학생이 많았다. 연령은 21세(30.1%)가 가장 많았다. 전공은 간호학과 107명(28.5%), 물리치료학과 85명(22.7%), 유아교육학과 42명(11.2%)이었다.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90명(53.2%)이었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의 성 지식 및 성 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 지식과 성 태도가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인구사회적 조사연구이다.

2.3 연구도구

2.3.1 성 지식

Jeon[8]이 개발한 성 지식 측정도구로 총 35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생식생리 8문항, 성심리 3문항, 임신 8문항, 피임 및 낙태 5문항, 성병 및 AIDS 10문항, 성폭력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도구의 결과해석은 최저 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었다.

2.3.2 성 태도

Ho[16]가 개발한 성 태도 측정도구를 Wu[14]가 수정, 보완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성적 쾌락 허용성 11문항, 혼전순결 허용성 7문항, 성 허용성 6문항, 동성애 허용성 5문항, 낙태 허용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는 .73-.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69-.90이었다.

2.3.3 생식건강 증진 행위

Jo[19]가 개발한 생식건강 증진 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남·여 대학생의 문항 수를 맞추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각각 16문항으로 안전 성행위, 성행위 책임감, 생식기 건강관리, 성병예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 증진 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남학생은 Cronbach′s α=.89, 여학생은 Cronbach′s α=.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93이었다.

2.4 연구절차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와 KSDC DB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등록하여 링크를 배포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익명성 보장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과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표본수 산정은 G-power 3.0[20] program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95% 검정력 수준에서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인 .15, 예측요인 2개를 지정하였을 때 최소 107명이 요구되었다. 수집된 자료 38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부를 제외한 357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생식건강 증진 행위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3)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4) 대학생의 성 지식 및 성 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5) 대학생의 성 지식이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및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 증진 행위 점수의 정도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를 측정한 결과, 성지식은 35점 만점에 21.8점이었고, 하부요인으로는 생식생리가 6.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생리가 2.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태도는 175점 만점에 98.01점이었고, 하부요인으로는 성적쾌락 허용성이 31.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성애 허용성이 14.84점으로 가장 낮았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80점 만점에 70.01점이었고, 성병예방이 22.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한 성행위가 15.74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Table 2>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subjects(n=357)

Variables	M	SD	Min	Max
Sexual knowledge	21.8	2.43	0	35
reproductive physiology	6.42	2.52	0	8
sexual psychology	2.32	1.01	0	3
pregnancy	3.85	1.99	0	7
contraception or abortion	3.28	1.47	0	5
venereal disease or AIDS	5.27	2.55	0	10
sexual violence	0.68	.47	0	2

Sexual attitudes	98.01	4.40	35	175
acceptability of prostitution	31.26	7.47	11	55
acceptability of sexual relation before marriage	18.54	5.52	7	34
acceptability of sex	15.91	4.22	6	27
acceptability homosexual love	14.84	6.05	5	25
acceptability of abortion	17.46	3.21	6	30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70.01	13.58	16	80
safety sex	15.74	4.02	4	20
sexual liability	16.23	3.23	4	20
reproductive health	15.89	3.36	4	20
venereal disease prevention	22.15	5.83	4	30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3.2 대학생의 성 지식 및 성 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

3.2.1 대학생의 성 지식과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

대학생의 성 지식과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n=357)

	safety sex	sexual liability	reproductive Health	venereal disease prevention	total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reproductive physiology	.21***	.22***	.14**	.23***	.25***
sexual psychology	.16**	.20***	.14**	.20***	.21***
pregnant	.17**	.21***	.18***	.26***	.25***
contraception or abortion	.25***	.28***	.23***	.34***	.33***
venereal disease or AIDS	.25***	.34***	.26***	.38***	.37***
sexual violence	.27***	.25***	.20***	.27***	.30***
total sexual knowledge	.26***	.31***	.24***	.35***	.35***

*** p<.01, **** p<.001*

<Table 3>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전체 성 지식과 전체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35, p<.001). 전체 성지식은 안전 성행위(r=.26, p<.001), 성행위 책임감(r=.31, p<.001), 생식기 건강관리(r=.24, p<.01), 성병 예방(r=.35, p<.001)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35,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성 지식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생식생리는 안전 성행위(r=.21, p<.001), 성행위 책임감(r=.22, p<.001), 생식기 건강관리(r=.14, p<.01), 성병 예방(r=.23, p<.001)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25,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 심리는 안전 성행위(r=.16, p<.01), 성행위 책임감(r=.20, p<.001), 생식기 건강관리(r=.14, p<.01), 성병 예방(r=.26, p<.001)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21,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임신은 안전 성행위(r=.17, p<.01), 성행위 책임감(r=.21, p<.001), 생식기 건강관리(r=.18, p<.001), 성병 예방(r=.26, p<.001)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25,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피임 및 낙태는 안전 성행위(r=.25, p<.001), 성행위 책임감(r=.28, p<.001), 생식기 건강관리(r=.23, p<.001), 성병 예방(r=.34, p<.001)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33,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병 및 AIDS는 안전 성행위(r=.25, p<.001), 성행위 책임감(r=.34, p<.001), 생식기 건강관리(r=.26, p<.001), 성병 예방(r=.38, p<.001)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37,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폭력은 안전 성행위(r=.27, p<.001), 성행위 책임감(r=.31, p<.001), 생식기 건강관리(r=.24, p<.001), 성병 예방(r=.35, p<.001)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35,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3.2.2 대학생의 성 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

대학생의 성 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전체 성 태도와 전체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7, p>05). 전체 성 태도는 안전 성행위(r=-.12, p<.05)와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행위 책임감(r=-.01, p>.05), 생식기 건강관리(r=.02, p>.05), 성병 예방(r=-.09, p>.05)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07, p>.05)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n=357)

	safety sex	sexual liability	reproductive health	venereal disease prevention	total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eptability of prostitution	-.17*	-.09	.03	-.12*	-.12*
acceptability of sexual relation before marriage	-.01	.08	-.03	-.05	.003
acceptability of sex	-.24***	-.13*	.04	-.12*	-.16**
acceptability homosexual love	.10	.09	-.02	.08	.08
acceptability of abortion	.01	.02	.04	.00	.02
total sex attitude	-.12*	-.01	.02	-.09	-.07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성 태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성적쾌락 허용성은 안전 성행위(r=-.17, p<.05), 성병 예방(r=-.12, p<.05)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12,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행위 책임감(r=-.09, p>.05), 생식기 건강관리(r=.03, p>.05)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 혼전순결 허용성은 안전 성행위(r=-.01, p>.05), 성행위 책임감(r=.08, p>.05), 생식기 건강관리(r=-.03, p>.05), 성병 예방(r=-.05, p>.05)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003, p>.05)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허용성은 안전 성행위(r=-.24, p<.001), 성 행위 책임감(r=-.13, p<.05), 성병 예방(r=-.12, p<.05)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16,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생식기 건강관리(r=.04, p>.05)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 동성애 허용성은 안전 성행위(r=.10, p>.05), 성행위 책임감(r=.09, p>.05), 생식기 건강관리(r=-.02, p>.05), 성병 예방(r=.08, p>.05)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08, p>.05)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허용성은 안전 성행위(r=.01, p>.05), 성행위 책임감(r=.02, p>.05), 생식기 건강관리(r=.04, p>.05), 성병 예방(r=.00, p>.05)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r=.02, p>.05)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학생의 성 지식이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3.3.1 대학생의 성 지식이 생식건강 증진 행위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성 지식이 생식건강 증진 행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Effects of sexual knowledge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n=357)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R^2 Variation	F
safety sex	(invariable)	13.00					
	sexual knowledge	.13	.26	5.25***	.07	.07	27.58***
sexual liability	(invariable)	13.38					
	sexual knowledge	.12	.31	6.32***	.10	.10	39.92***
reproductive health	(invariable)	10.64					
	sexual knowledge	.08	.24	4.77***	.06	.06	22.71***
venereal disease prevention	(invariable)	10.77					
	sexual knowledge	.11	.35	7.26***	.12	.12	52.65***
total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invariable)	47.78					
	sexual knowledge	.43	.35	7.16***	.12	.12	51.25***

<Table 5>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성 지식이 생식건강 증진 행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성 지식이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5, p<.001),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F=51.25, p<.001). 구체적으로 생식건강 증진 행위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성 지식이 안전 성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26, p<.001), 설명력은 7%로 나타났으며(F=27.58, p<.001), 성행위 책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1, p<.001), 설명력은 10%로 나타났으며(F=39.92, p<.001), 생식기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24, p<.001), 설명력은 6%로 나타났으며(F=22.71, p<.001), 성병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5, p<.001),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F=52.65, p<.001).

따라서 대학생의 성 지식은 안전 성행위, 성행위 책임감, 생식기 건강관리, 성병예방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생의 성 지식 하위요인이 생식건강 증진 행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Table 6>에서와 같이, 성 지식 하위요인이 전체 생식건강 증진 행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설명력은 16%였으며(F=11.73, p<.001), 성병 및 AIDS(β=.26, t=3.07, p<.01)가 생식 건강 증진 행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폭력(β=.15, t=2.72, p<.01)이 생식 건강 증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리 생식(β=-.05, p>.05), 성 심리(β=-.01, p>.05), 임신(β=.01, p>.05), 피임 및 낙태(β=.11, p>.05)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식 건강 증진 행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안전 성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10%였으며(F=6.65, p<.001), 성폭력(β=.17, t=2.98, p<.01)이 생식 건강 증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리 생식(β=.06, p>.05), 성 심리(β=-.01, p>.05), 임신(β=-.03, p>.05), 피임 및 낙태(β=.10, p>.05) 및 성병 및 AIDS(β=.09, p>.05)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위 책임감에 대한 설명력은 13%였으며(F=9.07, p<.001), 성병 및 AIDS(β=.30, t=3.47, p<.01)가 생식 건강 증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리 생식(β=-.05, p>.05), 성 심리(β=.01, p>.05), 임신(β=-.03, p>.05), 피임 및 낙태(β=.06, p>.05) 및 성폭력(β=.10, p>.05)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식기 건강관리에 대한 설명력은 9%였으며(F=5.78, p<.001), 성병 및 AIDS(β=.22, t=2.47, p<.05)가 생식 건강 증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리 생식(β=-.13, p>.05), 성 심리(β=.003, p>.05), 임신(β=.06, p>.05), 피임 및 낙태(β=.07, p>.05) 및 성폭력(β=.10, p>.05)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병예방에 대한 설명력은 17%였으며(F=12.13, p<.001), 성병 및 AIDS(β=.30, t=3.61, p<.001)가 생식 건강 증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리 생식(β=-.11, p>.05), 성 심리(β=-.02, p>.05), 임신(β=.01, p>.05), 피임 및 낙태(β=.12, p>.05) 및 성폭력(β=.10, p>.05)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 지식 하위요인 중 '성폭력'은 안전 성행위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병 및 AIDS'는 생식기 건강관리 및 성병예방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Effects of sex knowledge sub-factors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s *(n=357)*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R^2 Variation	F
safety sex	(invariable)	12.78			.10	.10	6.65***
	reproductive physiology	.10	.06	.66			
	sexual psychology	-.05	-.01	-.20			
	pregnant	-.05	-.03	-.37			
	contraception or abortion	.29	.10	1.36			
	venereal disease or AIDS	.13	.09	1.02			
	sexual violence	1.41	.17	2.98**			
sexual liability	(invariable)	13.33			.13	.13	9.07***
	reproductive physiology	-.07	-.05	-.57			
	sexual psychology	.04	.01	.17			
	pregnant	-.04	-.03	-.35			
	contraception or abortion	.14	.06	.77			
	venereal disease or AIDS	.35	.30	3.47**			
	sexual violence	.72	.10	1.86			
reproductive health	(invariable)	10.67			.09	.09	5.78***
	reproductive physiology	-.16	-.13	-1.59			
	sexual psychology	.01	.003	.04			
	pregnant	.08	.06	.80			
	contraception or abortion	.14	.07	.96			
	venereal disease or AIDS	.20	.22	2.47*			
	sexual violence	.55	.10	1.75			
venereal disease prevention	(invariable)	10.72			.17	.17	12.13***
	reproductive physiology	-.12	-.11	-1.30			
	sexual psychology	-.04	-.02	-.28			
	pregnant	.05	.04	.55			

	contraceptio n or abortion	.22	.12	1.71			
	venereal disease or AIDS	.27	.30	3.61***			
	sexual violence	.53	.10	1.86			
total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invariable)	47.50			.16	.16	11.73***
	reproductive physiology	0.25	-.05	-.66			
	sexual psychology	-.05	-.01	-.08			
	pregnant	.03	.01	.08			
	contraceptio n or abortion	.78	.11	1.47			
	venereal disease or AIDS	.94	.26	3.07**			
	sexual violence	3.20	.15	2.72**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 공학과 및 교양융합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대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가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Jeon[8]의 성 지식 도구, Ho[16]의 성 태도 도구, Jo[19]의 생식건강 증진 행위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성 지식 및 성 태도와 생식건강 증진 행위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성 지식과 성 태도가 생식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53.2%에서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7,10].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시기보다 자유로운 이성교제와 성경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들을 위한 올바른 피임방법과 성병예방에 대한 교육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져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64.70점의 점수를 보였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Jeon[8]의 연구에서 72.54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하위영역별 성지식 점수를 살펴보면 생식생리가 100점 만점에 80.25점, 성심리가 77.33점, 성폭력 68점으로 피임 및 낙태 65.6점, 임신이 48점 순이었다. Jeon[8]의 연구에서는 성병 및 AIDS와 성폭력에 대한 지식점수가 가장 낮은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임신과 성병 및 AIDS에 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53.2%에서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성을 매개로 한 질병이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요구에 대한 Lee 등[12]의 연구결과에서 1-4위가 성병 및 AIDS, 피임, 임신과 출산 등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중·고교시절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성적 자율성이 획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교제가 바로 성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성병 및 AIDS 감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감안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교육[21]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피임에 관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아지는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병예방 및 안전한 성행위를 하며, 성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4,10]. 특히 성 지식 하위요인 중 '성폭력' 과 '성병 및 AIDS'에 대한 지식이 생식기 건강관리 및 성병예방 및 전체 생식건강 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Kang[1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여학생에서 성지식과 생식건강 증진행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남학생의 경우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성경험 유무와 관련이 있으며, 남학생의 부모가 여학생의 부모보다 더 개방적인 성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9,10]. 이와 같은 결과는 성장하면서 자녀에게 보여지는 부모의 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태도의 경우 56점(최고 100점 만점)으로 성에 대해 중간정도의 개방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Lee등[18]의 연구에서는 58.2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성태도의 하부영역별 순위는 동성애 허용성(59.0점)이 가장 높았으며 낙태 허용성(58.2점), 성적쾌락 허용성(56점), 혼전순

결 허용성(54.5점), 성 허용성(53.0점)의 순이었다. Kim[13]의 연구에서도 하위문항 중 동성애 허용도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최근 들어 미디어 매체에서 동성애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대상자의 58.9%가 여학생이었고, 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학업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골반염증성질환, 정맥내 혈전증, 자궁 및 자궁경부 손상 등 심각한 수술 후 합병증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출산경험이 없는 첫 번째 임신의 인공임신중절에서 합병증 빈도가 경산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임신과 낙태의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대학생을 위한 성교육시 인공임신중절이 생식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Kang[10]의 연구에서 남학생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생식건강 증진행위와 성태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12]의 연구에서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인 성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성행동 경험이 더 많지만, 생식건강 증진행위는 여학생에 비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무비판적으로 개방된 성태도나 왜곡된 성태도는 여러 가지 성문제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23],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숙한 성태도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남학생 중 상대를 임신 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6%였고, 이들 중 94.4%가 인공임심중절을 하였으며, 임신 중절 후 출혈, 요통, 복통, 빈혈 등의 합병증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태도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을 보면 성에 대한 생각(쾌락 유희적성), 혼전순결 허용성, 낙태 허용성 등이다. 기존의 개발된 Park[25]의 도구 또한 순결, 성생리, 인공유산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학생과 달리 가임기인 여학생의 임신과 유산 등의 부담이 성태도에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남녀 대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성태도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태도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회화의 결과물로 설명되는 점을 감안할 때[26] 성태도의 정확한 측정한 위해서는 이전의 성경험과 성행동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지식가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성지식은 생식건강 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이었다. Kang[1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성지식보다 성태도가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생식건강 증진행위의 하부요인 중 '성병예방' 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대상자의 58.9%가 여학생이었으며, 이들 중 보건 사범계열 학생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일 것이라 예상된다.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 또한 피임을 실천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는 행위는 성교육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교육과정 내에서 전문가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생식건강 증진행위의 하부요인 중 '안전한 성행위' 점수가 가장 낮았다. 6천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7]의 연구에서 대상자 중 16.9%가 구강성교, 3.0%가 항문성교, 1.6%가 동성애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동성애 경험은 생식기 외상, 성병 감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의 다양화된 성행동 방식에 따라 학내에서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 증진 행위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건전한 생식건강 증진 행위의 실천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즉, 생식건강 증진행위 증진을 위해 대학 입학부터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대학에서 성 상담실을 따로 운영하여 생식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의 생식건강 증진 행위의 실천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안에 생식건강과 관련된 교육내용 포함, 대학 내 성상담실 설치 운영, 전문가 배치가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S. H. An, I. S. Park, J. S. Han, T. I. Kim. M. S. Kwak, H. S. Chung, “Health Behaviors, Reproductive Health Histor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4, No. 3, pp. 205-212, 2008.

[2] L. B. Finer, S. K. Henshaw, “Disparities in rates of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1994 and 2001”,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Vol. 38, No. 2, pp.90-96, 2006.

[3]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roductive Health”, Retrieved December 1, 2013, http://www.sho.int/topics/reproductive_health/en/

[4] M. S. Kim, Y. S. Eo, “A study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of one universit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1, No. 2, pp.140-147, 2015.

[5] E, K. Yoo, M. H. Kim., S. A. Kim , S. A. Park, H. S. Shin, S. H. An et al. “Maternity and Women’s Health care. 8th Eds.”, Seoul: Hyunmoon, 2005.

[6] H. Kennedy, M. Griffin, Freshman, G. "Enabling conception and pregnancy", Journal of Midwifery. Vol. 43, No. 3, pp.190-207, 1998.

[7] K. R. Shin, H. J Park, K. E. Bae, C. Y. Cha,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2, No. 6, pp.624-633, 2010.

[8] G. S. Jeon, H. Y. Lee, S. J. Lee, "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1, No. 1, pp. 45-68, 2004.

[9] H. Y. Ka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p.25, 2007.

[10] Y. S. Kang, H. N. Hwang,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3, No. 1, pp.9-17, 2017.

[11] J. H. Kim, K. S. Ki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3, No. 1, pp.123-138, 2008.

[12] H. S. Lee, B. H. Jeong, Y. H. Lee, W. S. Sung, J. O. Ha, G. Y. Lee, M. K. Lee, S. H. Song, "A study on the level of sex educati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allowa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Vol. 21, No. 3, pp.231-252, 2015.

[13] N. H. Kim, Y. J. Park, H. S. Jeong, "Relationship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 7, No. 2, pp.17-42, 2015.

[14] G. H. Woo, "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ter's thesis. Gongju University, p.25, 2010.

[15] I. M. Hwang, "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 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Mater's thesis. Eulji University, p.62, 2009.

[16]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p.27, 2009.

[17] C. F. Miller, H. M. Trautner, D. N. Ruble, "The role of gender stereotypes children's preferences and behavior, 2006.

[18] K. J. Lee, E. Lee, Y. S. Park, “ Comparison on influence fa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377-388, 2016.

[19] H. Y. Jo, Y. H. Kim, H. M. Son,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31, No. 5, pp. 29-43, 2014.

[20]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 175-191, 2007.

[21] S. M. Park, J. Y. Kim, S. H. Ko, "The sexual knowledge, sextual attitude and sexual bejavior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261-271, 2017.

[22] Y. J. Park, M. J. Sim, H. J. Kim, N. M. Jeon, H. W. Kim, E. S. Lee et al., Maternity and Women's Health Nursing. (4th Eds.). pp. 438-439, Hyunmoon. 2017.

[23] K. R. Shin, H. J Park, J. M. Hong,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2, No. 4, pp.448-456, 2010.

[24] Y. K. Yang,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need for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Nursing. Vol. 18, No. 3, pp.159-169,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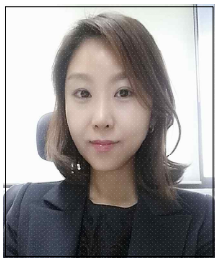
[25] M. S. Park, "A comparative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toward sex and needs about sex educ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Mater's thesis. Inje University, p.7, 2001.

[26] Y. H. Ju, E. S. Jeong, M. S. Shim,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9, pp.267-278, 2013.

구 상 미(Koo, Sang Mee)

- 2015년 8월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전공(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대학생 생식건강
- E-Mail : ksm@u1.ac.kr

김 형 재(Kim, Hyoung Jai)



- 2011년 8월 :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문화학과 아동보육전공(이학박사)
- 2013년 8월 :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교육학박사)
- 2016년 4월 ~ 현재 :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예비교사교육, 교양교육과정, 창의·인성교육
- E-Mail : versus486@u1.ac.kr